

8. 예배란 무엇인가?

같이 읽을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3,24)

예배의 어원

구약성경에서 예배를 뜻하는 말은 아바드(עבד), 샤하(שח)라는 단어인데 “섬기다, 엎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예배를 뜻하는 말은 프로스쿠네오(προσκυνέω), 라트레이아(λατρεία)라는 단어인데 “경배하다. 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종은 노예입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어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므로 주인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거나 아니면 아예 땅바닥에 엎드리기도 했습니다.

영어로는 예배를 워십(worship)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가치’라는 의미를 가진 워스(worth)와 신분을 뜻하는 십(ship)의 합성어입니다. 즉 영어로 예배를 뜻하는 ‘워십’이라는 말은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 드릴 때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시게 됨은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갖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새신자반」, 이재철)

1. 위에서 우리는 예배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일까요?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 봅시다.

열왕기하 17:36

이사야 66:23

2. 예배를 받으실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당연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누가 드려야 하나요?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 봅시다.

이사야 43:21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 봅시다.

로마서 1:25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마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3. 위에서 본 것처럼 예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의미와 이유는 무엇일까요?

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출20:8)’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이 다를 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온전히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②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꼭 예배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모으고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세상적인 것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결국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 봅시다.

히브리서 10:25

개인이 경건생활하는 것으로 충분했다면 위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은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단순한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쓰며 또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로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4. 위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24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 봅시다.

이사야 29:13

마태복음 15:8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없이,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애통함과 회개함이 없이, 사랑과 공경함과 헌신과 순종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이 싫어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 봅시다.

이사야 1:12,13

위에서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몸은 와 있으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거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② 나 자신을 살아 있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

로마서 12:1

나 자신을 살아 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짧은 시간 동안 아름다운 찬양과 그럴듯한 기도와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1

③ 감사로 드리는 예배

시편 50:23

5.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에서 읽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 봅시다.

①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사람과 화해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마태복음 5:23,24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흠이 있거나 더러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하고도 화목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사람하고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요일4:20)’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먼저 사람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레위기 10:1,2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성소에 있는 향로에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향을 태우는데 필요한 숯불은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에서 가져다가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대로 향을 피우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곳에서 불을 담아다가 향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고 사소한 실수에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게 반응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비롯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5.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먼저 우리의 심령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릇에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는 그 그릇이 비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 있던 것을 먼저 비워야 합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봅시다.

디모데후서 2:21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예배이며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더 나아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할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그리스도인은 잘 몰라서 그렇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은 타성에 젖어서 예배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살아 있는 예배’란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흔히 예배를 ‘은혜 받는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배의 결과이지 동기나 목적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정성을 바쳐야 합니다. 정성이 없으면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시간을 구성하는 기도와 찬송, 말씀과 헌금도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맞선 대영제국은 승산 없는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상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윌리엄 템플(Wilam Temple) 목사에게 대국민 연설을 부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전쟁이 큰일이지만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튿날 영국 전역은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결국 대영제국은 불가능해 보였던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였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신앙생활과 인생이 회복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배와 삶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와 삶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삶 속의 예배가 살아 있는 진정한 예배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삶을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를 드리는 것이 내 삶의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며,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